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신한중 해설 (7. 16. 버전)

<http://daejangbu.com/>

확실한 실력! 대처동 따!

군무원 국어
새로운 기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육군 중위 전역
현) 대처동 이강학원 국어 강사
현) 강남 하이퍼 국어 강사
현) 강남 대성 마이맥 국어 강사
현) 육사 / 경찰대 국어 대처동 1타 강사
현) 스카이에듀 국어 강사
현) 군무원 대장부 국어 강사



국어 신한중

군무원 국어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확실한 국어 성적 향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	02	03	04
검증된 국어! 국어 전문가!	대처동 1타 강사	추천하고 싶은 국어 강사!	군무원 국어 고득점 합격!

총평: 군무원 시험의 특징답게 비문학과 문학, 어문규정에서 많이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비문학과 문학 문제 중에 단순한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진 시험일 것입니다. 단순 개념만 묻는 것이 아닌 그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 17번, 21번 문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여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3문제에서 맞힌 수험생들은 고득점 획득에 유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썰 틈없이 경비를 선다.
-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p. 143)

'좀 더 큰 것'과 같이 단음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좀더 큰것'로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오답 해설]

- ① '겸'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다.
- ② '물썰틈없다'는 한 단어이기에 붙여 쓰기를 한다.
- ④ '는커녕'은 조사로서 앞의 말에 붙여서 쓴다.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교육자답다
- ② 살펴보다
- ③ 탐스럽다
- ④ 순수하다

[해설] 정답 ②

'살펴보다'는 동사 '살피다'와 동사 '보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합성어이다.

- ① '-답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파생어이다.
- ③ '탐스럽다'는 '탐'이라는 어근에 '-스럽다'라는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④ '순수하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3.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 ②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虎視牛步)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해설] 정답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② 호시우보(虎視牛步):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 ③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가 심해 빼기 어렵다.
- ② 평소 철차탁마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를 수 있다.
-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되었다.

[해설] 정답 ④

마비(癱瘓/麻痺) '마비'는 '저릴 마(癲) / 삼 마(麻)'자를 사용한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갈 마(磨)'자를 사용한다.

- ① 마모(磨耗)
- ② 철차탁마(切磋琢磨)
- ③ 연마(研磨/練磨/鍊磨)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한번 실패했다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해설] 정답 ① (문제풀이 강의 44강)

①의 한 번은 ‘일의 횟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형사+단위명사의 조합이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한다.

②~④의 ‘한번’은 모두 부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이다.

한번[부사]

1.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2. 기회 있는 어떤 때에.
 3.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다음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7)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 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6.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3권 p.166~189)

이 글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 같이 자연의 우연의 산물이므로, 자연에 감사해야 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성격은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로 볼 수 있다.

7.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괄식 ② 양괄식
 ③ 미괄식 ④ 중괄식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3권 p.166~189)

글의 구성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 글의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는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존하다’이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마지막 단락에 담겨 있다. 따라서 ‘미괄식(尾括式)’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두괄식: 주제가 글의 서두(앞쪽)에 위치하는 구조
 ② 양괄식: 주제가 글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함께 위치하는 구조
 ④ 중괄식: 주제가 글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구조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범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해설] 정답 ②

1단락에서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문화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질서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① 2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4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여 자신의 욕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3단락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분리되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지에 제시된 데카르트의 명제를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능률한 일사귀를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 김광섭, <해바라기> -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 ④ 환희가 넘치는 삶

[해설] 정답 ③ (현대시 워크북 수록 작품)

김광섭,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피어나는 자연의 배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현상과 함께 어우러져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순수 자연의 감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해와 그런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를 시인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인 정념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

고 해바라기의 모습이 태양을 찬양하는 해바라기의 강인하고 정열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신인 아폴로가 날마다 전차를 몰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으며, 밤에는 거대한 컵을 타고 북쪽으로 흐르는 태양의 해류를 따라 항해한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해바라기를 보고 느낀 서정적 화자의 서정이 집중적으로 노래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주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전개된 일종의 주지시라고 할 수 있다. 표현 감각이 통일성을 부분적으로 결여한 데다 이미지 전개에 다소 혼선을 보이고 현학적인 수사를 많이 쓴 것도 이러한 주지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바라기의 인상을 화사하고 정열적인 성격으로 빠짐없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해설] 정답 ①

이 글은 홍익대 교수인 박경미, “수학용어처럼 복잡한 세상”이라는 기사문의 일부분이다. 1단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2단락에서는 ‘N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안전)한지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중심내용을 잘 포괄하는 제목은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다.

11. 다음 중 ㉠ ~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 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 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 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 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 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 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 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 여 계속 잘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 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 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 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 가악하면 꽤먼 곳까지 잘볼 수있다.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 ② 뒤쪽 - 앞쪽 - 앞쪽
- ③ 앞쪽 - 뒤쪽 - 뒤쪽
- ④ 뒤쪽 - 앞쪽 - 뒤쪽

[해설] 정답 ①

1단락에서 ‘문제-해결’ 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

문제: 망막이 아니라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상황 = 근시
해결: 물체가 가까워짐 -> 초점이 뒤로 이동하여 망막에 맺힘

이러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했다면 물체가 가까워지면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정확히 맺힐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어 근시가 심하면 망막으로부터 더 앞쪽에 초점이 맺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참,세상 일두…….”

마을갔던 아버지가언제돌아왔는지, “윤초시택두 말이 아니어. ㉠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는 집마저 남 의 손에 넘기드니, 또악상꺼지 당하는 걸 보면…….”

남똥불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 애 둘 있든 건 어려서 앓구…….”

“어쩌든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 황순원, <소나기>중에서 -

- ① 雪上加霜
- ② 前虎後狼
- ③ 禍不單行
- ④ 孤掌難鳴

[해설] 정답 ④ (국어 교재 3권 p.62)

지문에 제시된 상황은 ‘ 좋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이다. 따라서 지문의 상황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① 雪上加霜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룰 때 쓰인다.

②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불행한 일이나 난처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③ 복불단행(福不單行)

복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뭇돈이 많이 나갔다.
-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해설] 정답 ③

아수라장(阿修羅場)은 한자어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 ① 가뭇돈 (加外돈)
- ② 고자질 (告者질)
- ④ 관자놀이 (貫子놀이)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東東風풍이 건 듯 부러 積積雪雪을 헤터 내니, 窓窓 밧긔 심 근 梅梅花花 두세 가지 띄여 세라. 𩇵득 冷冷淡淡담헌디 暗暗香향은 므스 일고. 黃黃昏昏의 돌이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綠陰陰이 질렸는디 羅羅帷帷 寂寂寞寞하고 繡繡幕幕이 뷔여 있다. 芙芙蓉蓉을 거더 노코, 孔公雀雀작을 둘러 두니, 𩇵득 시롭한디 날은 엇디 기똥던고. 鴛鴦鴛鴦금 버혀 노코, 五五色色線線선 플터 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手品品은 쿠니와 制制度도도 ㄹ줄시고 珊珊瑚호 樹樹 지게 우히 白白玉玉函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 오려 님 겨신 더 보라보니, 山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千千里리 萬萬里리 길홀 뒤라셔 츠자 같고. 니겨든 여려 두고 날 인가 반기실가.

-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잇니
녀던 길 알피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② 삼동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긴 별늬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 ③ 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더자시는 창 밧긔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겨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위흐느이다

[해설] 정답 ③ (국어 교재 2권 p.62)

아래의 작품(사미인곡)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작품을 찾으라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출제자 의도인 내용 및 주제와 가장 비슷한 작품을 찾으라는 문장을 간과하면 정답을 맞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사미인곡 본문을 보면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미인곡의 ‘매화’와 ③의 ‘뫓버들’은 모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인 사미인곡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작품은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정철, “사미인곡”

「사미인곡」 작품 전체가 한 여성의 독백으로 되어 있고, 여성적인 행위·정조(情調)·어투·어감 등을 봄·여름·가을·겨울에 맞는 소재를 빌려 작자의 의도를 치밀하게 표현하였다. 사용된 시어나 정경의 묘사 또한 비범한 것으로 높이 칭송되고 있다.

구성은 서사(緒詞)·춘원(春怨)·하원(夏怨)·추원(秋怨)·동원(冬怨)·결사(結詞) 등의 6단락으로 짜여져 있다. 서사에서는 조정에 있다가 창평으로 퇴거한 자신의 위치를 광한전(廣寒殿)에서 하계(下界)로 내려온 것으로 대우(對偶)하였다. 춘원에서는 봄이 되어 매화가 피자 임금께 보내고 싶으나 임금의 심정 또한 어떤 것인지 의구하는 뜻을 읊었다. 하원에서는 화려한 규방을 표현해 놓고, 이런 것들도 임께서 계시지 않으니 공허함을 노래하였다. 추원에서는 맑고 서늘한 가을철을 묘사하고 그 중에서 청광(淸光)을 임금께 보내어 당쟁의 세상에 골고루 비치게 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였다.

동원에서는 기나긴 겨울밤에 독수공방하면서 꿈에나 임을 보고자 하여도 잠들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결사에서는 임을 그리워한 나머지 살아서는 임의 곁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죽어서 벌이나 나비가 되어 꽃나무에 앉았다가 향기를 묻혀 임께 옮기겠다고 읊었다.

③ 홍량의 시조는 님에게 자신의 분신(뫓버들)을 꺾어 보내며 자신이라고 여겨달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볼 수 있다.

① 이황 도산십이곡: 이 작품은 퇴계 이황이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시조로서 총 12수로 되어 있다. 앞의 6수는 언지(言志)라고 하여 자신이 세운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에서 일어나는 감흥을 읊은 것이고, 뒤의 6수는 언학(言學)이라고 하여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본문은 9수에 해당한다.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고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나타난다.

② 조식의 시조: 조장은 청빈한 자기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장은 벼슬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으로 임금(중종)의 승하 소식을 듣게 되어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이다.

④ 박인로의 시조: 이덕형이 보낸 홍시를 보고, 효심이 깊은 인물인 육적의 회갈 고사를 연상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작품이다.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발가숭이 ② 강충강충
③ 뺨정다리 ④ 오뚝이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1권 p.400)

‘강충강충’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발가숭이’, ‘오뚝이’, ‘뺨정다리’는 모두 표준어이다.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한다.

-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해설] 정답 ④ (국어 교재 1권 p.179)

‘주체높임’을 묻는 문제이다. 주체높임은 크게 3가지로 표현된다.

- 주체높임의 조사(께서), 선어말 어미(-시-), 특수어휘.
이 문제에서는 이 중 선어말 어미와 특수 어휘를 모두 사용한 경우를 묻고 있다.

④의 경우 ‘가셨다’에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무시다’에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① ‘편찮으시다’라는 특수 어휘만 사용되었다.

‘편찮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이다. ‘편찮으시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형태이다.

② ‘돌아보시고, 부탁하셨다’에서 선어말 어미만 사용되었다.

③ ‘웃으셨다’에서 선어말 어미만 사용되었다.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재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정의 ② 유추
③ 예시 ④ 대조

[해설] 정답 ② (국어 교재 3권 p.166~189)

- 이 글에서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 * 유추: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 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① 정의: 2단락의 첫 부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이라는 부분은 ‘자막’의 정의를 서술한 부분이다.
- ③ 1단락에서 ‘뉴스’를 예로 들고 있다.
- ④ 2단락에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영화의 자막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텔레비전의 자막을 대조하고 있다.

18.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 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해설] 정답 ①

세계 각국 정부들의 환경보호 조치

(나) 환경보호 조치의 성과

(가) 환경보호 노력 중 실패한 경우

(다) 실패한 노력의 예시

위와 같이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군무원 시험에서는 필수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락별 중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접속어, 지시어를 활용하여 글의 흐름을 잡아내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문장배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선지를 봐야 한다. 선지에서 가장 맨 처음에 위치한 문단이 무엇인지 보자. 이 문제에서는 (나) 또는 (다)이다. 그러면 (가)는 시작 문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가)를 읽을 이유가 없다.

주어진 문장 끝부분에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는 내용에 주목하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올 (나) 또는 (다)의 앞 부분을 읽고 글의 흐름이 연결되는 문단을 찾아보자. (나) 시작 문장이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이 부분에서 “자원을 투자” → “조치”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나) 문단이 시작 문단임이 확인된다. (나)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노력”이 (가)의 시작 부분 “이러한 규제 노력”으로 연결된다.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밭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윤동주, <슬픈 족속>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해설] 정답 ④ (국어 교재 2권 p.230)

윤동주의 ‘슬픈 족속’에서 밑줄은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이 백의(白衣)를 주로 착용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 민족을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흰 띠’ 등으로 표현하였다.

①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②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김광섭, “마음”

③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나희덕, “땅끝”

④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칼날’은 그 속성을 활용하여 ‘고통, 위험’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한용운, “나의 길”

[참고] 대유법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 ‘흰옷’으로 우리 민족을, ‘백의(白衣)의 천사’로 간호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나타내는 것 따위이다.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해설] 정답 ① (국어 교재 1권 p.59)

‘공깃밥(空器밥)’이 올바른 표기이다.

[참고] 사이시옷 표기 규정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의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부딪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아랫니),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덧일) 적는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꿇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제삿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훗일) 적는다. 그리고 두음절로 된 다음의 한자어에 (긋간, 셋방, 찻간, 뿔간, 횡수, 숫자)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 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숲속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筑)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중에서

-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해설] 정답 ②

이 글은 수필이다. 물소리를 들은 경험을 토대로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① 연암 박지원은 여러 작품에서 전쟁의 은유를 즐겨 구사하는 인물이다.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서도 물소리에 대해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험에서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문의 앞부분에 “1만 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기병, 1만문의 대포, 1만 개의 전고”로 비유하기도 한다. 전쟁이 지나는 특성, 역동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참고]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1780)

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이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역설하고 있다. 글쓴이의 분석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글이다.

주제: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해설] 정답 ②

②의 경우, “보다 III. 1.(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다는 의미)”에 해당하며, 나머지 선지의 경우 ‘보다 I. 16.(대상을 평가한다는 의미)’에 해당한다.

[참고]

보다 I. 16.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

예문1. 이익을 보다.

예문2.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보다 III. 1.

대상을 평가하다.

예문.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보아 줄 수가 없었다.

23. 다음 중 ‘을’이 ‘동의의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설] 정답 ④

(문제풀이 강의 21강)

‘동의의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찾아야 한다. ④가 정답이다.

[참고]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공손한 어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중 어법’이라고도 한다.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 있다.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중하고 공손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

관용의 격률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격률에 의

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이다.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겸양의 격률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동의의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랑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 ① 동냥 ② 구걸
③ 중생 ④ 자비

[해설] 정답 ①

‘동냥’은 고유어이다.

- ② 구걸(求乞) ③ 중생(衆生) ④ 자비(慈悲)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북한산을 등산하려고 한다.

-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② 청와대 - Chungwadae
③ 한라산 - Hanrasan
④ 북한산 - Bukhansan

[해설] 정답 ④ (국어 교재 1권 p.259, 7월 9일 모의고사)

- ① 사람의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즉 ㄴ첨가를 반영한 ‘Nyeonphil’은 잘못된 표기이다.
② ‘ㄱ’은 u가 아니라 eo로 표기한다. ‘Cheongwadae’
③ 한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유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적절하며 ‘Hallasan’과 같이 적어야 한다.

** 모두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http://daejangbu.com/> 02-849-7746

군무원 전문 대장부

2022 군무원 면접 신청



1차 신청: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신청
7월 26일 화요일 첫 교육 시작!

2차 신청: 2022년 8월 19일 필합 발표 직후 신청
8월 20일 토요일 첫 교육 시작!

신청 방식: 학원 홈페이지 면접 신청 게시판

군무원 면접 합격 노하우 8~9회차 특별한 전략

1	2~7	8~9
1회차 전체 교육	답변, 태도 피드백	최종 모의 면접
면접 120개 질문 답변 안내 세부적인 답변 안내 이미지 메이킹 입장 퇴장 예절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고칠 부분 피드백 + 전공 질문 제공	실전 모의 면접 직렬에 맞는 기출 모의 면접
1. 군무원 전문 면접 강사에 의한 피드백!		
2. 조별 스터디 모임 구성		
3. 직렬별 군무원 기출 면접 질문 답변 제공 + 전공 질문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2022 군무원 전문 대장부 면접 합격 프로그램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의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오로지 군무원 면접만 연구하면서 수강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전문 면접 강사들이 포진하여 조별로 수강생들을 밀착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어떻게 올바른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수강생들간 조별 스터디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면접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8회이며, 추가적으로 1~2회는 무료로 교육 진행합니다.

군무원 대장부 면접은 **1. 대면반 2. 비대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부터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1차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필합 발표 직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차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와 2차 면접 교육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대면반, 비대면반 안내

비대면반

횟수: 총 8회 교육 + 6시간 영상 교육 제공

방식: 구글 미트, 줌 활용 (실시간)

조 편성: 1조당 5~6명 (강사 1명)
(회당 2.5시간)

(교육 일정은 조별로 결정합니다.)

A반 비대면: 얼리버드반 (7월 21일 신청)

비용: 42만 원 (수강생)
45만 원 (비수강생)

B반: 국방부 7급 PT 비대면 45만 원

C반(인강 제공반): 10시간 교육 영상 제공
+ 전공 질문 제공

비용: 10만 원 (교재비 포함)

택1

대면반

횟수: 총 8회 교육 + 6시간 영상 교육 제공

방식: 대면 교육 (지역 택1)

서울 지역 - C반 D반 선택 가능

전주 지역 - C반 선택 가능

부산 지역 - C반 선택 가능

수강생이 교육 받을 지역 1곳 선택 가능합니다.

1조당 5~6명 (회당 2.5시간)
(교육 일정은 조별로 결정합니다.)

D반 (5~6명 조)비용: 48만 원 (수강생)
51만 원 (비수강생)

E반: 국방부 7급 PT 대면반
비용: 50만 원

비대면반, 대면반 모두 1조당 강사가 배치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조별 스터디**도 편성해드립니다.

조별 교육 일정은 각자 조에서 강사, 조원들과 상의 후에 결정합니다.